

## 多夕의 文學思想

朴奎洪\*

- I. 서론
- II. 文學思想 형성에 관련된 정황 검토
  - 1. 문학에 관한 多夕의 관심
  - 2. 多夕의 文學思想 형성 배경
- III. 多夕의 文學思想 분석
- IV. 결론

### 【요약】

先行的 논문 두 편을 통하여 종교사상가 다석이 수 천 수의 시조와 한시를 남겼음을 국문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모든 작품에 관류하고 있는 그의 문학사상을 밝혀보고자 했다.

은둔한 종교사상가로 성자의 삶을 살다 간 다석은 동서양의 경전을 두루 천착하였을 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邵康節이나 소로우, 칼라일 등 동서양 시인들의 많은 시를 섭렵했다. 그리고 다석은 자신의 신앙에 충실한 자신만의 확고한 시문학관을 바탕으로 시조나 한시 혹은 현대시를 지었다.

\* 경일대학교 교육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다석은 ‘진리의 말’을 ‘노래’라고 했다. 또 시를 소리라고 하고, 소리는 본디 말이 아니라 노래요 시라고 했다. 곧 시는 노래요, 진리의 말이라는 것이다. 그의 모든 시는 이런 시각에 충실했다.

그러나 다석은 하늘의 뜻이 반드시 말이나 소리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진정한 진리의 말은 귀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고 말한다. “언어도단을 느끼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고도 했다. ‘상대적 있음이 없이 있는’ 절대적 존재인 하느님은 말과 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語不成說中”이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하느님을 말로 나타내려 안간힘쓰는 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것이 ‘修辭立其誠’ 즉 ‘말을 다듬어 그 참을 세운다’는 것이다.

다석의 오랜 강의와 수많은 시편들이 결국은 ‘修辭立其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석이 시조에 일반인들로서는 해석이 곤란한 많은 造語를 시도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언어의 유희나 기호의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立其誠하기 위한 修辭의 노력이었다.

## I. 서론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생존했던 종교사상가 多夕 柳永模(1890-1981)가 2천 수 이상의 시조를 남겼다는 것을 2005년에 필자가 처음으로 국문학계에 보고한 바<sup>1)</sup> 있다. 2006년 초에 한 편의 논문<sup>2)</sup>을 더했는데, 필자는 이 두 편의 논문을 통하여 다석의 생애

1) 박규홍, 「多夕 柳永模의 時調 研究」, 『時調學論叢』22집, 한국시조학회, 2005. 5-25쪽.

2) \_\_\_\_\_, 「多夕 柳永模 時調의 特質」, 『時調學論叢』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와 사상, 그의 시조의 특질과 시조관, 그리고 그의 시조가 갖는 시문학사적 의미 등을 밝혀보고자 했다.

두 편의 논문을 통하여 국문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논문으로서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2,254수에 이르는 시조 중 실제로 거론된 것은 불과 몇 수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한시나 현대시는 논의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 다석이 가졌던 시조에 대한 시각의 일단을 찾아내기는 했으나, 그의 문학사상을 심도 있게 탐구하지는 못하였다.

시조부흥운동을 주도했던 六堂과 동시대를 살며 깊이 교류했던 다석은 20년에 걸쳐 2천 수가 넘는 독특한 표기의 시조를 지었음 뿐만 아니라 1,300수가 넘는 한시를 남겼다. 이 작품들은 거의 종교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다석 나름의 문학사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작품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초작업으로 그의 문학사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독실한 신앙심으로 성자의 삶을 산 다석이 문학에 기울었던 관심을 고찰해 본 다음, 그의 문학관 형성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그의 문학사상이 어떠했는가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런 작업은 다석이 남긴 시작품들을 국문학사에 수용하는 데 있어 매우 요긴한 일이 될 것으로 본다.

## II. 文學思想 형성에 관련된 정황 검토

### 1. 문학에 관한 多夕의 관심

다석은 2,254수의 시조와 1,300여 수의 한시, 250여 수의 현대시,

---

199-221쪽.

그리고 한 편의 가사를 남겼다.<sup>3)</sup> 이 많은 문학작품들은 그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겠다.

다석은 일찍부터 동서고금의 시를 적잖이 섭렵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李太白의 시 <月下獨酌>을 인용하고 그것의 의미를 바꿔 <世間特酬>라는 시로 개작<sup>4)</sup>한 것을 보면 시에 특별한 애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석은 北宋의 학자 邵康節(1011-1077)의 시를 특히 좋아해서 그의 시를 외우기도 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이는 소강절(邵康節)을 청해야 한다. 나는 으레 동짓날이 되면 소강절의 동지시를 안 외우고는 못 견딘다.<sup>5)</sup>

다석이 낙양 땅에서 평생을 은둔하여 지내며 특이한 수리철학을 창안한 소강절을 좋아한 것은 톨스토이를 좋아한 것과 일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석이 톨스토이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땀 흘려 일해서 먹어야 하고, 자신의 배설물은 자신이 치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귀농하여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실천한 것을 앞의 논문에서 언급한 바<sup>6)</sup> 있는데, 1957년 9월 6일 일기에 적힌 다음의 시조가 바로 그런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땅과 땀은 밥맛 내기로 바뀔

입맛있고 진땀내면 모르기론 땅패기문.  
무슨생각 올바르게? 말은언지? 일은무슨?  
우리는 땅과물먹고 땀맛밥힘으로

3) 각주 1) 참조.

4) 『다석일지』 제2권, 홍익재, 1990, 692쪽.

5) 박영호, 『多夕語錄』, 홍익재, 1993, 336쪽.

6) 박규홍, 「多夕 柳永模의 時調 研究」, 20쪽.

땀을 흘려 땅을 파서 농사지어 얻은 밥 먹고 물 마셔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석은 동시대 일본의 요절 시인 다꾸보꾸(啄木)에게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다음은 그 다꾸보꾸에 대한 언급이다.

일본의 다꾸보꾸(啄木)라는 시인은 27살에 이 세상을 그만 둔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김소월과 비슷한 데가 있다. (중략) 높은 곳에서 스키를 타고 활주하다가 잘못하여 떨어져 죽게 된다. 그 떨어지는 동안 이 한참 되는데 그 죽음 직전 동안의 생각을 그리고 있다. 곤장 떨어지면 금방 죽는 것 같아 아이고 죽나보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한참 동안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만을 하게 되지 않는다. 1분 동안 떨어진다면 꽤 생각을 할 수 있다. 다꾸보꾸는 죽기 전 1분 동안의 그 생각을 그리다가 끝낸 사람인지 모르겠다.7)(1956)

다석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죽기까지의 순간 동안 일어나는 생각을 그린 다꾸보꾸의 시에 공감을 느낀 듯하다. 늘 죽음을 사모하고 죽을 날을 손꼽았던 다석이니 만큼 그런 다꾸보꾸의 시에 관심이 갔을 것이다.

다석은 서양 시인들의 시도 많이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21년에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33인의 한 사람인 南岡李昇薰(1864-1930)이 자신보다 14살 어린 島山安昌浩(1878-1938)의 教育立國 정신에 호응하여 세운 이 학교에서 많은 志士들이 배출된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3.1운동에 대한 책임으로 교장 인준이 취소된 古堂曹晩植(1882-1950)의 후임으로 부임한 다석은 학과목 ‘修身’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다석은 학생들에게 영국의 역사가요 수필가인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의 <오늘>이란 시를 가르쳤다는데, 다음은 당시의 제자 함석헌(1901-1989)의 증언이다.

7) 박영호, 『多夕 柳永模 어록』, 두레, 2002, 177쪽.

학과목 담당은 수신(修身)을 맡으셨었는데 한 번도 소위 교과서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일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노자의 『도덕경』이고 홍자성(洪自誠)의 『채근담』에서 뽑아내서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카일라일이 어렸을 때 지었다는 시입니다.

“여기 흰 날이 다시 왔도다/ 낭비하지 말지어다”하는 식으로 읽어 내려 가셨습니다. (중략)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So here has been another blue day;  
Think, wilt thou let it slip useless away?

Out of eternity this new day is born;  
Into eternity at night will return.

See it afore time, no eyes ever did;  
So soon it forever from all eyes is hid.

Here has been another blue day;  
Think, wilt thou let it slip useless away!<sup>8)</sup>

함석헌은 다석이 “몸소 실천하고 계신, 또 예로부터 모든 참되게 살려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켜 왔던, 현재주의 또는 시재(時在)주의 살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sup>9)</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석은 월든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생활한 실천 철학자요 수필가이든 시인인 소로우(Henry D. Thoreau, 1817-1862)도 좋아했다고 한다.<sup>10)</sup>

또 다석은 구약성경 중 ‘시편’을 특별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인

8) 함석헌, 오산(五山)학교 유영모 교장, 『동방의 성인 다석 유영모』, 도서출판 무애, 1993, 37쪽.

9) 함석헌, 앞의 책, 같은 쪽.

10) 다석의 제자 박영호의 증언(2007.4.23.).

다. 1928년부터 1963까지 35년 간 서울 YMCA 연경반에서 강의를 했던 다석은 1957년 연경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sup>11)</sup>

「시편」7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37장과 그 뜻에서만큼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전체의 의미를 간단히 보려면 「시편」73장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시편」73장은 ‘아삽의 노래’라고 하는데,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코라 후손의 노래’, ‘아삽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에즈라인에단의 시’ 등에 나오는 하느님의 종들은 음악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sup>12)</sup>

시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된 언급이다. 『성경』의 시편에 실린 글들이란 무엇인가? 바로 詩이자 노래들이다. 『시경』의 작품들이 시요 노래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예들로 보아 동서양의 경전을 두루 섭렵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독특한 神觀을 세운 다석이 동서양의 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서고금의 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다석 자신의 창작 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윗이 자신의 여호와에게 노래를 바치는 모습이나 다석이 하느님을 시로 그리고 노래하는 모습에는 대차가 없어 보인다. 부하를 고의로 사지로 몰아넣고 그의

11) 다석은 1928년부터 1963년까지 약 35년 간 서울 YMCA 연경반에서 강의를 했다. 다석의 강의는 가까운 제자들의 뜻에 의해 두 차례 속기로 기록이 되는데, 한 번은 1956년에서 1957년에 걸친 1년 간의 기록이고, 다른 한 번은 1960년에서 1961년 사이에 걸친 기록이다.

이 강의록은 다석의 제자 박영호에 의해 일부가 정리되어 두 번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2005년 다석학회가 결성되면서 그 전문이 정리되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첫 번째 책은 1993년 『씨울의 메아리 多夕語錄』 죽음에 생명을 절망에 희망을이라는 제목으로 홍익재에서 간행되었고, 두 번째 책은 2000년 두레출판사에서 『多夕 柳永模 어록』이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최종의 단행본은 2006년 3월 현암사에서 발행하였다.

12) 다석학회, 『다석강의』, 현암사, 2006. 510쪽.

부인을 취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 다윗과 貪瞋痴에서 벗어나는 성자의 길을 추구한 다석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각자의 신 앞에서 시를 노래하는 모습은 닮았다는 것이다.

다석은 YMCA에서 강의를 하다가도 신이 나면 자작시에 운율을 붙여 읊기도 하고 ‘手之舞之 足之蹈之’ 춤을 추기도 하였다고 한다.<sup>13)</sup> 진리를 꿰뚫어 본 哲人의 안목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그가 구현한 靈舞요 靈歌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평생 절대적 진리를 추구했던 다석은 동서양의 경전을 면밀히 살펴 거기에서 공통된 절대적 가치를 찾고자 했다. 그런 종교사상이 다석이 동서고금의 시들을 두루 감상하고 나름대로 평가하여 때로 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그의 생각이 수 천 수의 한시의 형태 아니면 시조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다석 자신의 일관된 문학사상의 소산물임을 개개의 작품 작품에서 느낄 수 있다. 그의 난삽한 시작품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려면 이 문학사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리라 본다.

## 2. 多夕의 文學思想 형성 배경

문학사상의 형성 배경을 살피는 일은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일과 통할 수밖에 없다. 다석의 성장 배경은 다석의 생애를 소개한 첫 논문<sup>14)</sup>에 어느 정도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이 논문과 다석의 연보<sup>15)</sup>를 바탕으로 다석의 문학사상을 포괄하는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법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3) 박영호의 증언(2007.4.23.).

14) 박규홍, 「多夕 柳永模의 時調 研究」

15) 박영호, 『多夕 柳永模 명상록』, 두레, 2000, 630-632쪽.

알려진 바와 같이 다석은 만 4세 때 부친에게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다석의 부친 류명근은 3·1운동 때 48인의 한 사람으로 체포 구금되어 105일 간 옥살이를 했던 인물이다.<sup>16)</sup> 천자문을 가르쳤던 부친의 영향을 부지불식간에 입었을 것이다. 부친으로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한 다석은 6세<sup>17)</sup> 때부터 서당에 다니며 ‘通鑑’을 비롯한 한문을 배웠고, 10세 때 수하동 소학교에서 2년 수학한 후 다시 서당에 가서 3년을 수학했다고 한다. 시상이 한문으로 떠오른다고 한 다석의 한시 창작 능력은 당연히 이런 서당 공부를 통하여 배양되었을 것이다. 다석이 여러 한시를 접했을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이런 서당 공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서울 종로에 자리한 중앙 YMCA 강당에서 사자후를 터뜨렸던 애국지사들도 어떤 식으로든 사춘기의 다석에게 영향을 준 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다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YMCA 한국인 초대 총무를 지낸 金貞植이었다. 구한 말의 고위 무관이었던 그는 독립협회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1902년 투옥되는데, 옥중에서 성서를 접하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어 YMCA와 인연을 맺고 한국인 초대 총무를 맡게 된다. 그가 1905년 애국지사들의 강연을 들으러 YMCA를 출입하던 15세의 다석을 연동교회로 인도한다. 다석이 7년 후에는 교회를 떠나는 비정통 신앙인이 되지만,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의 새로운 경험은 어린 다석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909년 양평학교에서 19세의 나이로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한 다석은 이듬해 평북 정주 오산학교의 교사로 부임한다. 이때 오산학교에 기독교를 전파하여 학교 설립자 남강 이승훈까지 기독교에 투신하게 된다. 2년 동안 근무하는 이 시기, 다석은 춘원 이광수

16) 박규홍, 앞의 논문, 9쪽.

17) 선행의 두 논문에서는 다석이 출생한 해를 한 살(1세)로 세었으나, 본고 부터는 기왕의 다석 연보에 맞추어 한 살씩 빼서 세도록 한다.

(1982-?), 단재 신채호(1880-1936), 시당 여준(1862-1932) 등과 만난다. 이들과 만난 2년 사이에 다석의 내면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음이 틀림없다. 오산학교에 기독교를 전파한 그가 학교를 떠날 무렵에는 정통신앙에서 비정통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전환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18)</sup> 첫째는 톨스토이의 영향이요, 둘째는 불경이나 노자 등 다른 경전을 읽게 된 것이요, 셋째는 두 살 아래인 아우의 죽음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시기에 톨스토이의 사상과 불경, 노자의 도덕경 등이 다석의 정신세계에 크게 자리잡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석은 27세가 되는 1917년에 육당과 교유하면서 『청춘』지에 여러 편의 글을 기고하지만, 이후 65세가 되는 1955년 일기를 쓰기 시작하기까지 거의 글을 남기지 않고 있다. 31세가 되는 1921년에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1년 간 학생들에게 ‘수신’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1928년부터 시작한 YMCA 연경반 강의가 1955년에 이르기까지 27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는데도 남겨진 글이 거의 없다. 그가 추구하는 정신세계가 언어도단의 지경에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남길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65세 되던 1955년, 1년 뒤인 1956년 4월 26일 죽는다는 사망에 정일을 선포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sup>19)</sup> 이는 글에 관한 한, 51세 때 해혼을 선언하고 금욕생활과 1일1식에다 잣나무 널 위에서의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보다 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55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는 20년 간 이어진다. 거기에는 2,200여 수의 시조와 1,300여 수의 한시, 그리고 250여 수의 현대시가 실려 있다. 이 모든 작품에는 평생을 갈구해 온 진리에 대한 다석의 깊은 정신세계가 기반에 깔려 있다. 그의 문학사상도 결국은 이 범주 안에서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18)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 199쪽.

19) \_\_\_\_\_, 『多夕 柳永模 명상록』, 두레, 2000, 632쪽.

### III. 多夕의 文學思想 분석

도합 4,000수에 가까운 다석의 시조와 한시, 현대시는 거의가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난해하다. 그 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문학사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들의 근저에 관류하고 있는 문학사상을 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석은 YMCA 연경반 강의 때 자신의 시가관을 분명히 표명한 적이 있다. 2006년 다석학회에서 발간한 『다석강의』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正)은 하나(一)로 그친(止) 것을 말하고, 음(音)은 말씀(言)에 하나(一) 더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가 들어갔다는 것은 진리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리가 납니다. 말로 들리지 않고 음악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은 말소리보다는 음악적으로 직감으로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노래'라고 합니다. 시(詩)는 소리입니다. 참뜻이 담긴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게 참 좋아서 소리를 내면 분명히 노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좋아서 노래를 하지만 무슨 소리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좋아서 노래를 하고 가더라, 누가 물어도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소리도 시(詩)입니다. 무슨 시이고,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음악으로 좋게 들립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곤 합니다. (중략)

소리는 본디 말이 아닙니다. 노래입니다. 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시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음악적으로 된 것입니다. 음(音)은 말(言)에 하나(一)를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의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본음(本音)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정말 본심(本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 본음이라고 씁니다. 모든 것의 본음(本音)을 알아야 합니다.

장(章)은 여러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 소리가 모여서 조화를 이룬 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거친 소리가 본뜻에 어긋나면 전장(全章)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음악의 악장(樂章)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전체는 조화를 잃고 맙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음(正音)이 미양(未央)이면 전장(全章)은 반(叛)합니다. 한마디로 그치는 정음은 로고스의 정의(定義)입니다. 정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福音)을 알아야 합니다. 정음을 모르고 복음을 알려는 것은 전장(全章)을 반(叛)하는 일이 됩니다. 중화(中和)가 잘 안 됩니다.<sup>20)</sup>

다석은 ‘진리의 말은 말소리보다는 음악적으로 직감으로 알게 된다고 하고, 그것을 노래’라고 했다. 또 시를 소리라고 하고, 소리는 본디 말이 아니라 노래요 시라고 했다. 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그의 모든 시는 이런 시각에 충실했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시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논어』 ‘泰伯’편의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다석도 그것을 엄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공자의 생각에 다석이 공감할 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음(音)은 말씀(言)에 하나(一) 더 들어간 것”인데 이 하나란 것이 곧 진리라고 했다. 진리가 들어간 말은 노래로 구현되고, 이 노래란 것이 곧 ‘시’라는 것이다. 또, 본심에서 나오는 本音を 알아야 된다고 하고, 하나(一)로 그치(止)는 正音を 알고 福音을 알아야 된다고 했다. 본뜻에 어긋나는 한 가지 거친 소리가 있어도 全章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다석에게 있어서 詩는 곧 노래요, 노래는 진리가 들어간 말이다. 다석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시작품으로 그대로 구체화된다. 다음은 하늘의 소리가 사람의 말을 빌려 표현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한시다.

20) 다석학회, 『다석강의』, 현암사, 2006, 597-598쪽.

天音人言

生來有言借口能 (얼나로) 나서부터 말씀이 있어 (제나의) 입 빌리고  
死去無口還本音 (제나가) 죽자 입 없어 (얼나는) 성령으로 돌아가  
代代斷言猶遺志 대대로 말이 끊겼으나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남겼고  
世世欲言大畜音 세세로 말씀할 하늘 소리 담은 큰 그릇<sup>21)</sup>

(1957.11.16.)

위의 한시는 다석이 1957년 11월 16일 일기에 적어둔 네 수의 한시 중 한 수이다. 제목 옆에 주역의 ‘謙’괘와 ‘大畜’괘를 그려두고 있다. 옆의 해석은 박영호가 한 것인데, 박영호는 위의 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생래(生來)란 하느님의 열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말한 것이다. (중략) 이렇게 하느님의 열은 사람(성인)의 마음속에 임재(臨在)하여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느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렸다. 예수석가는 철저히 하느님의 입노릇을 하였다.

(중략) 하느님의 입노릇을 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니 예수를 통한 하느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미리 예수가 죽은 뒤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죽음으로 끝나 이제부터 너희들은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므로 내가 떠나면 너희는 더 빨리 성령을 받아 얼나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빨리 독립하게 되어 더 낫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거무구환본음(死去無口還本音)이다. (중략)

석가는 40년을 넘게 설법을 하였으나 예수는 4년도 못 되게 가르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도 그들이 남긴 말씀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뚜렷하게 밝혀졌다. (중략) 류영모도 톨스토이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이 예수의 유지(遺志)라 할 가르침을 좇아서 참나를 깨달아 하느님 아들로 거듭났다. (중략)

21) 박영호, 『多夕 柳永模 명상록』, 두레, 2000, 121쪽.

하느님은 말씀의 열이 가득 찬 탱크(tank)이다. 그 열을 받아서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한다. (중략) 대축(大畜)이란 말은 주역(周易) 26번째 괘(卦)에 나온다. 산(☶)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다. 하늘이 산 속에 있다고 하여 천재산중(天在山中)이라 한다. 류영모는 이 괘를 풀이하기를 “이를 정신적으로 해석하여 우리 몸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도 하늘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류영모는 뒤에 오는 이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사람이 나온다고 하였다.

다석은 하늘의 말씀을 메신저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지만, 메신저의 입이 없을 때는 하늘의 본음에 귀 기울일 수 있다고 했다. 대대세세 말이 끊겼을 때는 오히려 하늘이 남긴 뜻(遺志)이 있고,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성령가득한 소리(大畜音)가 있다는 것이다. 산(☶) 밑에 하늘(☰)이 있는 주역의 ‘大畜’괘를 몸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天音人言>이라는 한시로 육화한 것은 다석이 아니고는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물론 다석은 모든 하늘의 뜻이 반드시 말이나 소리로 표출된다고 하지는 않았다. 다음의 한시가 그런 생각을 담고 있다.

#### 眞言無辭

今生言辭欲證有 이승에서 말하면 증거 있기를 바라고  
 往生心性本固存 저승에서도 살 맘의 열은 이미 분디 있었지  
 耳目視聽何足據 귀 눈으로 보고 듣는 게 어찌 흡족한 증거이라  
 虛空大小圓滿魂 빚은 크든 작든 열로 가득 찼어라

悅以學習至知言 기쁨으로 배우고 익히면 말을 아는 데 이르러  
 且不用之新故溫 또 새 말씀 예 말씀을 익히어 쓰지 않으랴  
 自遠有朋所以何 멀리서부터 오는 벗이 있음은 어떤 까닭인가  
 相慰知止而不慚 서로 알아주어 그칠 줄 알고 성내지도 말람이다

(1959.3.18.)

박영호는 위의 시를 해설하면서 “영원히 갈 하느님의 말씀은 이 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입을 짝 다물어도 하느님의 뜻만 있으면 영원히 갈 말씀이다”라고 한 다석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어 “天何言哉(『논어』양화편)”란 공자의 말과 “天不言(『맹자』만장 하편)”이라고 한 맹자의 말, 노자 『도덕경』의 ‘無言之教’라는 말이 모두 다석이 이 시의 제목으로 취한 ‘眞言無辭’와 통한다는 것이다.<sup>22)</sup>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만, 보고 듣는 것이 충분한 증거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진정한 진리의 말은 귀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학에 대한 다석의 생각도 이런 시각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석의 시각으로 볼 때 진리의 소리에 경청함이 없이 글 재간으로 쓴 글은 글이 아니었다. 다석은 글[文]은 ‘그리워하다’를 줄인 말로 보았다. 그래서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글이 참글이라고 했다.

영원한 님(하느님)을 그리는 글이 바른 글이다. 영원한 님을 그리지 않는 글은 몽땅 그른 글이다.(1957)<sup>23)</sup>

다석의 생각이 이러한 만큼 그의 시조나 한시에는 진리를 궁구하는 그의 뜻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다석 작품에 문학성 유무의 시비는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문학성이란 무엇인가?

다석이 좋아했던 소로우도 “나는 위대한 시와 하찮은 시의 차이

22) 박영호, 앞의 책, 236쪽.

23) \_\_\_\_\_, 『多夕 柳永模 어록』, 두레, 2002, 24쪽.

를 이렇게 생각한다. 위대한 시는 뜻이 말을 앞질러 말 밖으로 흘러 넘친다. 반면에 하찮은 시는 말이 뜻을 앞지른다.”<sup>24)</sup>고 했다. 소로우의 말에 따라 문학성을 논한다면, 그 유무가 아니라 문학성의 차원을 논해야 할 것 같다. 다석도 예술가와 시인, 또 종교인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한 바 있다. 다음은 다석이 1957년 7월 2일의 일기에 적어 둔 내용이다.

應無所住而生其心

빛갈을 잘가리는이는 빛갈에 달려붙지 않고  
 소리, 냄새, 맛을 잘가리는이는 소리, 냄새, 맛에 달려붙지 않고  
 맨지를 잘맨지는이는 맨지는데 들러 붙지않고  
 수(方法)를 잘내는이는 수에 들러붙질 않습니다.  
 藝術家가 得意作속에 居住(自足)하지 안으며  
 詩人이 自成品속에 骸骨을 누힐수는없겠습니다.  
 作品, 詩集, 業績, 經傳, 室家, 議事堂, 說教會, 社會 等等은 色(空아  
 닌)界의 攝影帖입니다.  
 魂命을 찾아가는 「생각」의 歸着點은 自我만이 받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석은 약 35년 간 서울 YMCA에서 강의를 했다. 1957년 어느 하루는 六祖 慧能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으로 유명한 「금강경」 구절 ‘應無所住而生其心’을 강의할 요량으로 일기에 정리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위의 내용으로 강의한 것을 『다석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기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 보도록 한다.

예술가는 자기 뜻을 대표할 만한 작품을 냅니다. (중략) 작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만큼은’하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작품, 곧 자

24) 『소로우의 일기』(윤규상 역), 도솔출판사, 1996, 283쪽.

족(自足)할 만한 걸작은 여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략) 요새 예술가는 특선(特選)에만 들면, 그게 무엇이 장한지 일생을 두고 우려먹고 별 짓을 다 합니다. 진정한 예술가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인(詩人)이 자성품(自成品) 속에 해골(骸骨)을 누힐 수는 없겠습니다.’ 시(詩)가 잘 되었다고 해도 그 속에 자기 해골을 들여놓힐 수는 없습니다. 시를 만든 당시의 소감(所感)과 그 시를 나중에 보고 느끼는 소감에는 여간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宗敎家)가 자설법(自說法)에 열반(涅槃)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설법을 만족스러워하며 세상을 떠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략) 실가(室家)는 살림하는 집이고, 의사당은 나라의 살림을 토론하는 집을 말합니다. 무슨 무슨 회(會) 등으로 나눠놓습니다. 이 사람은 분류하기 싫지만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였는데, 사람이 하는 일 전부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색계(色界), 곧 물질세계의 사진첩입니다. 사진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나서 말씀을 생각하는 이것이 정신입니다.

(중략) 이같이 모든 것에 능란한 사람은 그 재주에 들러붙지 않습니다. 들러붙어서 하려면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 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내놓지 못합니다. 자유자재(自由自在)로 다스릴(治) 줄 알아야 합니다. 다스리는 게 절로 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생을 잘 살았다는 사람은 이 들러붙지 않는 묘리(妙理)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산 사람일 것입니다. 불즉불리(不卽不離)라는 말과 같이 붙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가는 이 생각은 절대(絶對)를 향해 가는 생각의 더듬음을 말합니다. 이론적인 생각은 자구 상대적으로만 하려는 것이 탈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붙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떠나서 벗어버리지 않으면, 곧 불교에서 말하듯 도피안(到彼岸)해서 열반(涅槃)에 들지 않으면 정말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 아닙니다.<sup>25)</sup>

다석의 이런 정신세계로 보아 다석에게 있어서의 ‘문학적 아름다움’은 진(眞)과 선(善)에 맞닿아 있어, 말만으로 빚어내는 아름다

25) 다석학회, 『다석강의』, 현암사, 2006, 889-892쪽.

움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일로 보인다. 예술이 궁극에 추구하는 것이 ‘美’라면 다석에게 있어서의 미는 무한히 열려 있는 허공(없이 있는 하느님)에 있거나 그 허공과 교감하는 정신에 있을 뿐이다.

인생은 한정된 곳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 없는 곳에 뜻이 있다. 정신과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 이것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현상 속에서 산 우주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율동을 느껴야 한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있는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며 우주에서 생명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라는 것이다.<sup>26)</sup>

다석에게 있어서는 ‘끝없는 우주’(즉 허공)로부터 생명의 율동을 감지하고 이를 운율로 표출하는 것이 至善의 노래요 詩인 것이다. 사람의 몸이 악기라고 하고,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 조율(調律)이 되어 있어야 하듯이 사람의 몸은 조절(調節)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느님께서 타실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sup>27)</sup>한 것도 모두 하나의 생각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쓴 시조에 대해서도 “누가 보면 시조가 아니라 할지 모르나 나는 나대로 시조가 될 수 있다. 내 몸을 갖다가 운(韻)으로 하고 조금 느낌을 통하게 하여 이러한 시가 되었다”<sup>28)</sup>고 말한 것일 것이다.

20년 동안 수 천 수의 시조와 한시를 지은 바탕에는 다석의 이런 생각이 한결같이 자리하고 있었다.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절대적 세계에 대한 노래를 끊임없이 토해낸 다석의 문학 사상을 그대로 담은 한시 한 수를 본다.

26) 박영호, 『多夕語錄』, 홍익재, 1993, 179쪽.

27) \_\_\_\_\_,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하)』, 40쪽.

28) \_\_\_\_\_, 『多夕語錄』, 홍익재, 242쪽.

斯文閑談

新晨偶得閑  
長夜定忘忙  
語不成說中  
修辭入其誠 (1962.11.15.)

위 시를 ‘첫 새벽아침 고요함을 얻어/ 긴 밤 조용히 번거로움  
잊어/ 말로는 말하지 못하는 가온인데/ 말 다듬어 그 참을 세우리  
라’라고 번역한 박영호는 承句의 ‘定’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정(定)은 숙면이나 기도를 뜻한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정능득(有定能得)이라. 정(定)함이 있  
어야 능히 얻는다는 이 말은 대학(大學)에 있는 말이다. 정(定)은 집안  
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일찍 인도 사람들은 앉아 있는 것을 바로  
가는 것으로 알았다. 참선의 원리가 그렇다. 참선하려 함은 입정(入定)  
이라 하고 참선을 마치고 나가는 것을 출정(出定)이라고 해서 앉는 상  
(像)을 띄워 존중한다. 정(定)의 자리는 믿는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다. 성  
불(成佛)하겠다고 성불의 자리를 찾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정(定)이다.  
요즘 내 기도는 이 선정에 기울어지고 있다.”(다석어록)  
류영모는 하느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우주도  
세계도 나라도 자신조차도 잊어버렸다. 석가는 선정에 들었을 때 빈  
수레 5백 대가 지나가도 몰랐다지만 온 우주의 별이 다 떨어져 없어  
진다 하더라도 몰라야 한다. 나의 의식이 무한으로 팽창하여 무한우주  
를 안고 하느님의 의식이 축소되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것이 장  
자(莊子)의 좌망(坐忘)이다.<sup>29)</sup>

또 轉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9) 박영호, 『多夕 柳永模 명상록』, 두레, 2000, 570쪽.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가온(中이)이란 우주의 밑둥이다.”(中也者 天下之大本 - 『중용』 제1장)라고 한 말은 전체요 절대인 하느님을 뜻한다. (중략)

그러므로 상대적 있음(有)이 없이 있는 절대적 존재인 하느님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불성설중(語不成說中)이라 한 것이다.<sup>30)</sup>

이처럼 다석은 자신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 혹은 절대적 존재인 하느님을 말이나 글로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언어도단을 느끼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sup>31)</sup>고 한 것이다. 45년 동안 대장경을 이를 만큼 많은 설법을 하여 長廣舌이라는 말을 듣는 세존이 법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한 것처럼 다석도 진리를 밝힌다고 하는 많은 말이나 글이 결국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다석은 YMCA에서 35년간이나 강의를 했고, 수 천 수의 시조와 한시를 남겼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답은 앞에서 인용한 <斯文閑談>의 結句에서 하고 있다. ‘修辭立其誠’하겠다는 것이다. 박영호는 이 결구에 대하여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하느님을 말로 나타내려 안간힘쓰는 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sup>32)</sup>고 설명하고 있다. ‘글이 말을 다하지 못하고, 말이 뜻을 다하지 못하지(書不盡言 言不盡意 - 『주역』 계사 상편)만, 그래도 참에 뜻을 두어야 하고 뜻에 말을 맞춰야 하고 말을 글로 간추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修辭立其誠’, 즉 ‘말을 다듬어 그 참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다석의 오랜 강의와 수많은 시편들이 결국은 ‘修辭立其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석이 남긴 말과 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30) 박영호, 앞의 책, 571쪽.

31) \_\_\_\_\_, 앞의 책, 같은 쪽.

32) \_\_\_\_\_, 앞의 책, 같은 쪽.

그래서 필자는 다석이 “시조를 통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문학 양식인 시조가 오묘한 신앙의 진리를 담아내는 훌륭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었다”<sup>33)</sup>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석이 시조에 일반인들로서는 해석이 곤란한 많은 造語를 시도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언어의 유희나 기호의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立其誠하기 위한 修辭의 노력인 것이다.

####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본고는 다석 류영모와 그의 작품에 대한 선행의 논문 두 편에 이어 그의 문학사상을 밝혀보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먼저 문학사상 형성에 관련된 몇 가지 정황들을 살핀 다음, 다석의 문학사상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다석은 부친에게서 「천자문」을 배운 것을 시작으로 하여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한다. 많은 한시를 남길 수 있었던 기초가 이런 한문 공부에서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문을 공부했다고 해서 모두가 많은 한시를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석은 시문학에 남다른 관심과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석은 동서양의 많은 시를 섭렵했다. 평생을 은둔자로 지낸 소강절이나 월든 호숫가에서의 생활로 유명한 소로우 등의 시를 좋아했고, 하루 하루를 성실하게 보낼 것을 노래한 칼라일의 <오늘>이나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진지함을 노래한 다꾸보꾸의 시를 가

33) 박규홍, 「多夕 柳永模의 時調 研究」, 21쪽.

르치기도 하고 즐겨 읽기도 했다. 동서고금의 많은 작품들을 향수한 것이 후일 시 창작의 밑거름이 된 것은 틀림없는 일일 것이다. 문체는 다석이 여느 시인들과 같은 시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석은 자신만의 확고한 시문학관을 바탕으로 매우 난해한 시조나 한시 혹은 현대시를 지었다. 다석의 작품들에 관류하고 있는 문학사상을 밝히는 일은 그의 시작품을 온전히 수용하는 데 매우 긴요할 수 있다.

다석의 정신세계는 몇 번의 굴절을 겪는다.

1905년 애국지사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중앙 YMCA에 출입하던 15세의 다석은 김정식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게 된다. 이는 다석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1910년 다석은 약관의 나이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에 교사로 부임하는데, 그의 영향으로 오산학교의 설립자 남강 이승훈도 기독교에 투신하게 된다. 오산학교에 근무하는 2년 동안 춘원, 단재, 시당 등의 인물들을 만난다. 그는 이 기간에 톨스토이, 불경, 노자 등에 심취하게 된다. 오산학교를 떠날 즈음 교회를 떠나는 비정통 신앙인이 된 것도 이런 영향이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27세가 되는 1917년에 육당과 교류하면서 『청춘』지에 여러 편의 글을 기고하지만, 이후 65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기까지 거의 글을 남기지 않았다. 그가 추구하는 정신세계가 언어도단의 지경에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남길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5세에 1년 뒤의 사망예정일을 선포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는 글에 관한 한 51세에 시작한 금욕생활보다 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55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는 20년 간 이어진다. 거기에는 2,200여 수의 시조와 1,300여 수의 한시, 그리고 250여 수의 현대시가 실려 있다. 이 모든 작품에는 평생을 갈구해 온 진리에 대한 다석의 깊은 정신세계가 기반에 깔려 있다. 그의 문학사상도 결국은 이 범주 안에서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다석은 ‘진리의 말’을 ‘노래’라고 했다. 또 시를 소리라고 하고, 소리는 본디 말이 아니라 노래요 시라고 했다. 곧 시는 노래요, 진리의 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에서 일어난다’고도 했다. 공자와 같이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실제 다석은 이런 시각에 충실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석은 하늘의 뜻이 반드시 말이나 소리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진정한 진리의 말은 귀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고 말한다. “언어도단을 느끼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고도 했다. ‘상대적 있음이 없이 있는’ 절대적 존재인 하느님은 말과 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語不成說中”이라 한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하느님을 말로 나타내려 안간힘쓰는 게 또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것이 ‘修辭立其誠’ 즉 ‘말을 다듬어 그 참을 세우리라’는 것이다.

다석의 오랜 강의와 수많은 시편들이 결국은 ‘修辭立其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석이 시조에 일반인들로서는 해석이 곤란한 많은 造語를 시도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언어의 유희나 기호의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立其誠하기 위한 修辭의 노력인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문학사상(Literary Ideology),  
 시문학관(view to poetic literature),  
 언어도단(words cannot communicate what you mean),  
 語不成說中(talking unreasonably),  
 修辭立其誠(the truth of God's words through carving and polishing human words)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多夕日誌』(1-4권), 弘益齋, 1990.  
다석학회, 『다석강의』, 현암사, 2006.

### 2. 단행본

류영모 말씀, 박영호 엮음, 『多夕語錄』, 홍익재, 1993.  
\_\_\_\_\_ 지음, 박영호 풀이, 『多夕 柳永模의 열의 노래』, 두레, 2004.  
박영호, 『多夕 柳永模 명상록』, 도서출판 두레, 2000.  
\_\_\_\_\_, 『多夕 柳永模 語錄』, 도서출판 두레, 2002.  
\_\_\_\_\_,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하), 두레, 2001.  
\_\_\_\_\_, 『씨을 - 多夕 柳永模의 生涯와 思想』, 弘益齋, 1985.  
\_\_\_\_\_, 『역자, 『莊子 - 다석 류영모의 사상과 함께 읽는 장자』, 두레, 1998.

### 3. 논문

朴奎洪, 「多夕 柳永模의 時調 研究」, 『時調學論叢』22집, 2005, 5-25.  
\_\_\_\_\_, 「多夕 柳永模 時調의 特質」, 『時調學論叢』24집, 2006, 199-221.

## Literary Ideology of Dasuk

Park, Kyu-Hong

It was reported in my two articles that Dasuk, a religious philosopher, left thousands of Sijo and the poems in Chinese. Now the literary ideas working through all his works will be identified in this study.

Dasuk, who led a saint's life as a seclusive religious philosopher, made a thorough investigation of scriptures of the world, was deeply interested in poetry of the ancient and the modern as well as of the east and the west, and tasted many poems of Gangjul So, Henry D. Thoreau, Thomas Carlyle, etc. Moreover, he created Sijo, poems in Chinese, or modern poems based upon his own view to poetic literature devoted to his faith.

Dasuk regards 'words of truth' as 'songs.' He also named poetry as sound, which he insists is songs and poems, not just sound. That is, poetry is songs and the words of truth. All his poems deliver his stance successfully.

However, Dasuk insisted that the will of Heaven cannot be delivered only in speech or in sound. The truth is not to be heard. He also said, "If you don't realize that words cannot communicate what you mean, it's false." According to him, God who exists without a relative being cannot be explained in speech or writing, which means "talking unreasonably." He also mentioned that nevertheless, it is the duty of human beings to try to express God's indescribable word in human words. It means that truth is verified by refining words.

Giving lectures, creating poems, and trying incomprehensible coinages are Dasuk's efforts "to reveal the truth of God's words through carving and polishing human words," not a word play or a experiment of signs.

박규홍

경일대학교 교육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주소: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시지6차 태왕리더스 105동 1005호

전화번호: 053-850-7105, 010-9711-7105

전자우편: [khpark@kiu.ac.kr](mailto:khpark@kiu.ac.kr)

이 논문은	2007년 4월 28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